

한국 신학의 지식구조

유영준(나사렛대학교 점자문헌정보학과 교수)(철학/세계관 6-3)

논문초록

2000-2008년 사이에 간행된 한국 신학 관련 학술지 9개의 논문에 저자가 부여한 색인어를 계량서지학적으로 분석하였다. 전체 학술지의 구조는 한국교회, 복음주의와 개혁 신학, 그리스도와 교회, 성령, 구약성경, 예수와 생명, 칼빈, 목회상담, 교회론 등의 10개의 군집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개별 학술지의 분석에서는, 4개의 장로교 교단 학술지 중에서 장신논단을 제외한 나머지 학술지는 개혁 신학과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의 장로교단의 신학은 개혁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기독교신학논총의 신학적 입장은 신학사상은 장로교 신학과는 다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신학논총은 자유주의 신학적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학사상은 자유주의 신학과 한국 고유의 민중 신학이 주요한 신학으로 밝혀졌다. 또한 순수한 신학 학술지와는 다르게 한국기독교와 역사는 한국 역사의 주요 사건과 기독교의 역할이나 관계를 신앙과 학문은 신학 자체보다는 다양한 학문 분야와 우리 삶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주로 연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한국 신학, 지식구조, 계량서지학, 신학 학술지, 색인어

I. 서론

한국에 기독교가 전파 된지 1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그 동안 한국 기독교는 양적으로 대단한 성장을 이룬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 대학생이나 고등학생 등 젊은 층의 기독교 인구는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종교별 인구 통계에 의하면, 기독교인 비율이 18.3%이지만, 대학생에서의 비율은 4%, 고등학생은 3.5%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1995년과 2005년의 기독교 인구를 비교해보면 144,000명이나 감소하였다(통계청 2005). 반면에 천주교와 불교 등 다른 종교의 인구는 증가하였으며, 전체 종교 인구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독교인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내에서 기독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점차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측면도 있으며,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서 제대로 된 역할이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상황과 관련해서 김성수(2005: 57)는 누가복음 11:33-36에 대한 해석을 29-32과 연결시켜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마치 온 몸을 밝히는 눈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교회에 베푸셔서 교회로 하여금 이 은혜와 축복을 온 세상에 증거 하게 하셨습니다. 마치 빛이 어둠을 비추듯이 모든 진리와 의와 생명, 은혜와 축복을 죄와 죽음 아래 있는 세상에 전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만일 교회가 어두우면 세상은 빛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눈이 먼 장님과 같이 되며 빛이 없는 흑암과 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 어디에서도 진리와 의와 생명의 빛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진 참된 보편의 교회(the universal church)에 한국 교회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빛이 어둠을 밝히는 것처럼 한국 교회도 이 세상에 빛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데 그 빛인 한국 교회가 진리의 빛을 비추지 못한다면 즉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올바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어떤 다른 사회적 기관도 교회가 하는 그 역할을 대체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한국 기독교의 내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요인들을 밝히기 위해서 계량정보학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서 한국의 신학 관련 학술지에 실린 연구 논문들의 색인어를 분석함으로써 한국 신학과 그 신학적 시각이 투영되어 있는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특징과 문제를 밝히려고 하였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한국 신학과 한국 교회에 대한 현상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II. 연구 방법

1. 색인어 수집

각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자가 부여한 색인어를 아래와 같이 연도별로 수집하였으며, 개별 학술지에서 수집한 색인어의 수와 비율은 <표 1>과 같다.

<표 1> 분석 대상 학술지와 색인어 비율

학술지 제목	색인어 수	비율	연도
개혁신학과 교회	117	5.2	2000-2008
신학정론	117	5.2	2000-2008
신학지남	361	16.2	2000-2008
장신논단	274	12.3	2000-2008
성경과 신학	274	12.3	2000-2008
한국기독교신학논총	521	23.4	2000-2008
신학사상	309	13.9	2000-2008
한국기독교와 역사	130	5.8	2000-2008
신앙과 학문	128	5.7	2001-2008
합계	2,231	100	-

2. 통계 처리

통계 처리는 두 가지 분야로 나누었다. 먼저 학술지 전체와 개별 학술지를 분석하였으며, 그 다음에는 학술지 간의 유사성을 분석하였다. 학술지 분석에서는 2차 피어슨 상관계수(2nd order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이다. 이 방식을 사용한 경우는, 각 키워드간 1차 동시출현빈도 행렬을 입력 데이터로 하여 SPSS에서 다시 2차 상관 계수를 산출한 것이다. 즉 이 방식은 두 키워드 사이의 동시출현 정보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두 키워드가 다른 키워드들과 가지는 유사도가 비슷한지 여부를 반영한다. 다시 말하면, 2차 상관 계수를 통해서 두 키워드 사이의 관계를 구할 때에는 두 키워드가 제 삼의 다른 키워드들과 가지는 유사도가 서로 비슷할수록 두 키워드가 관련이 깊다고 판단한다. 색인어에 근거한 학술지 구조에 대한 통계 처리와 더불어 학술지 간의 연관성도 구조도로 제시하였다. 여기에서도 두 가지 통계 기법을 사용하였는데, Path Finder Network(PFNet)과 다차원축적법(Multidimensional Scaling)을 이용하였다. 먼저 PFNet으로 학술지 9종 사이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만든 학술지 간의 관계 구조이다. 각 학술지를 먼저 키워드의 출현빈도 행렬(벡터)로 표현한 다음, 이 벡터 사이의 코사인 유사도를 구하여 만들었다. 다음에 이 결과를 토대로 학술지 간 코사인 유사도 행렬로 만든 다차원축적법을 이용해서 지도로 제시하였다. 여기에서는 SPSS의 다차원축적법 메뉴 중에서 PROXSCAL을 사용하였다.

III. 선행 연구

지금까지 국내에서 학문 분야의 지식구조를 분석하기 위해서 저자동시인용 기법을 자주 사용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용어동시출현 기법을 이용한 선행 연구들을 주로 다루었다. 먼저, 이미경(2003)은 인공지능 분야를, 유영준(2003)은 문헌정보학을, 박각노(2004)는 공급 사슬 경영이라는 주제를 분석하였다. 세 연구 모두 신학과 같은 인문학 분야가 아니었다.

이재운(2003)은 질의확장의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동시출현 기법을 적용하였으며, 다차원척도법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연구하였다(이재운 2007). 이외에도 계량서지학의 방법론으로는 동시링크를 이용하는 기법이 최근에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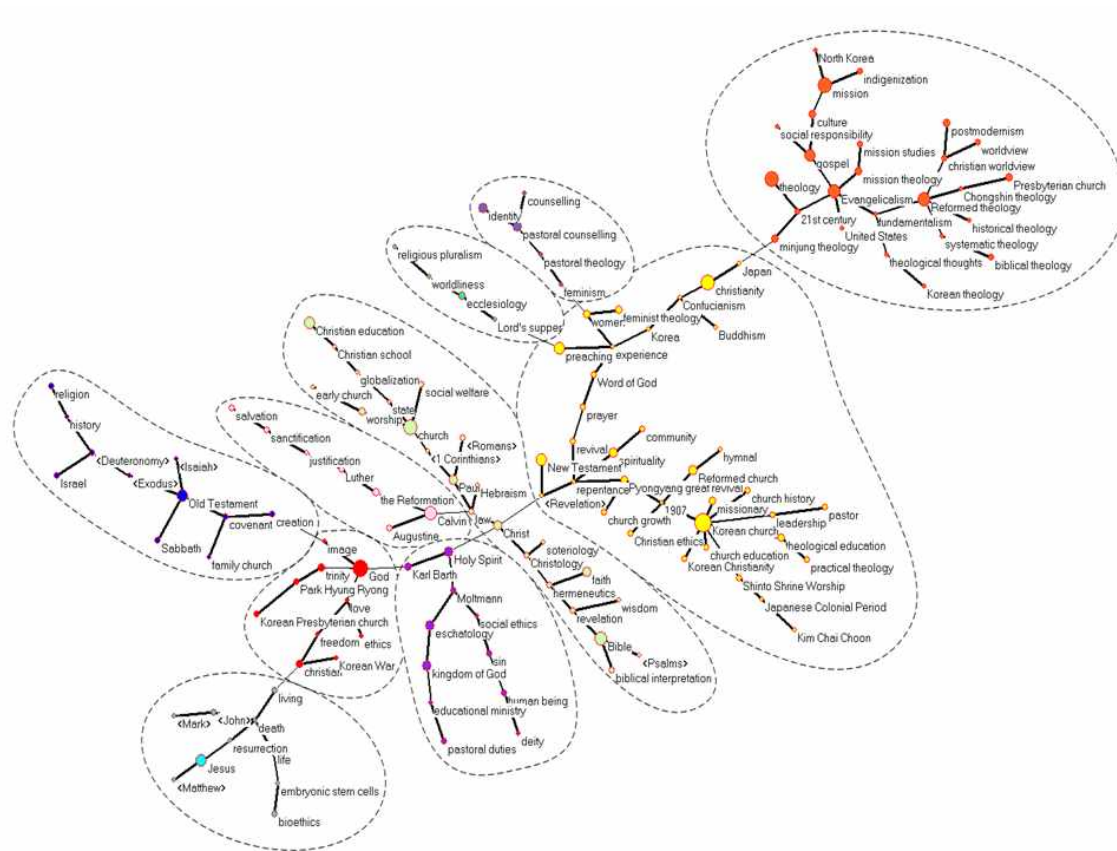
IV. 분석

1. 전체 학술지

10개 cluster의 중심 용어를 기준으로 이름을 부여하였다. 클러스터의 크기가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순서를 정하였다.

1. 전체 학술지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색인어인 한국교회가 이 클러스터의 중심
2. 복음주의와 개혁신학이 중심인 클러스터
3. 그리스도가 중심이면서 교회와 성경이 빈도수가 높은 용어인 클러스터
4. 성령이 뿌리인 나무구조
5. 구약 성경이 중심인 클러스터
6. 하나님이 뿌리인 나무구조
7. 죽음이 뿌리이지만 예수, 생명, 배아줄기세포 등이 주요 용어
8. 칼빈이 뿌리인 클러스터
9. 목회 상당이 중심인 클러스터
10. 교회론이 중심인 클러스터

Theological Journal'의 LCSH(Library of Congress Subject Headings) 색인레코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2차 피어슨 상관계수를 이용한 전체 학술지 구조도(클러스터 경계 포함)

Briggs, Charles A. (Charles Augustus), 1841-1913;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Controversies;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Government; Bible--Authority; Westminster Confession; Theology, Reformed; Presbyterian churches--Doctrine

Dabney, Robert Lewis, 1820-1898; Palmer, Benjamin Morgan, 1818-1902; Adger, John B. (John Bailey), 1810-1899; Waddel, John N. (John Newton), 1812-1895;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Old School);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New School);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History; Presbyterian churches--History; Presbyterian churches--Doctrine; Presbyterian churches--Controversies; Theology, Reformed; Southern States--Church history--1800-1899

Gifts, Spiritual; Prophecy--Christianity; Presbyterian churches--Scotland; Covenanters; Theology, Reformed; Scotland--Church history

그리고 ATLA DB의 ‘Calvin Theological Journal’의 색인 레코드에서는 개혁 신앙 교회와 개혁 신학이 함께 색인되는 사례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한국 신학의 지식 구조에서는 두 색인어의 관련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두 용어가 인접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한국 신학에서는 두 주제를 함께 연구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개혁 신학의 색인어 빈도수가 개혁 교회의 빈도수보다 훨씬 높은 것에서도 이와 같은 결과를 입증할 수 있다.

Kuyper, Abraham, 1837-1920; Church and state--Reformed churches; Politics and Christianity--Reformed churches; Sociology, Christian (Reformed); Natural law; Two kingdoms doctrine; Theology, Reformed; Peer reviewed

Hoeksema, Herman; Christian Reformed Church--Controversies; Christian Reformed Church--Doctrine; Politics and Christianity; Law of God; Calvinism; Theology, Reformed; Church and state--History of doctrines--1900-1999

Christian Reformed Church--Doctrine; Salvation--History of doctrines--1900-1999; Theology, Reformed; Councils and synods

다시 말해서 개혁 신학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만, 그 신학 사상이 구현되어야 할 실제 개혁 신앙 교회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신학은 신학으로서 존재 가치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즉 성도의 삶 속에서 드러날 때 그 진정한 가치를 발휘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개혁 신학은 한국 교회에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이러한 해석은 개혁 신앙 교회에 대한 한국 교회의 인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개혁신앙교회는 종교개혁의 신학 사상을 이어 받은 교회를 일컫는 용어이지만, 한국 교회 내에서는 개혁 신앙을 지지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가톨릭교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독교 교회 즉 복음주의 교회를 포함하는 의미로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는 개혁 신학과 개혁 신앙 교회가 동일한 클러스터에 함께 묶이지 않은 것으로도 알 수 있다.

또한 개혁 신학의 가지인 기독교 세계관이 세계관과 포스트모더니즘을 하위 가지로 갖는 것을 통해서 개혁 신학이 자신의 영역을 넘어서 개혁 신학 사상을 사람들의 실제 삶에 적용하는 데까지 주제의 범위를 확장한 것을 알 수 있다. 기독교 세계관이 주된 연구 주제이며 세계관이 연관을 갖는 것은 쉽게 설명이 되지만, 포스트모더니즘이 기독교 세계관의 가지인 것은 연관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대 사회의 주요한 세계관 중의 하나인 포스트모더니즘을 연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특히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분명히 비판적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을 다루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시편은 5번 클러스터인 구약 성경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로는 구약과는 관련 없는 클러스터에 속하였다. 그러나 성경에서 갈라진 두 가지 중의 하나인데 다른 가지는 성경 해석이다. 비록 구약과는 연관성이 떨어지는 클러스터에 속하였지만, 인접 용어들과 관계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 가지 추정이 가능한 것은 한국의 신학 연구에서는 시편을 구약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연구하기

보다는 독립적인 내용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한국의 신학계에서는 아직 성경 신학적 연구 방법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성경신학적 관점에서는 시편이 구약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가정 교회의 경우에는 5번 클러스터는 구약 성경과 관련된 용어들과 인접하고 있어서, 가정 교회가 이 클러스터에 속한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비록 가정 교회가 구약 성경 클러스터에 포함된 것을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지만, 전체적으로는 클러스터 내의 용어들 간의 연관성 결과가 현재 한국 신학의 구조와 상당히 유사하며, 동시에 한국 신학의 연구 경향과 교회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어서 한국 신학의 일반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3번 클러스터인 그리스도는 믿음, 성경, 바울, 교회, 기독교 교육 등 기독교 신학의 가장 핵심적인 용어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클러스터는 보다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신학적 주제들이 포함되었다. 따라서 이 클러스터와 전체 구조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대비되는 1번 클러스터인 한국교회에는, 신약성경, 설교, 평양대부흥, 교회 성장, 기독교 윤리학, 리더십, 목회자, 교회교육, 실천신학 등이 포함되었다. 이를 통해서 한국 교회 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들이 아주 실제적인 주제들이라는 것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그리스도 클러스터가 신학의 기본 바탕을 이루는 주제들이 대부분이라면, 한국교회 클러스터는 그 토대 위에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주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2번 클러스터인 복음주의와 개혁 신학은 한국 신학 사상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사상이 복음주의와 개혁 신학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개혁 신학의 하위 가치와 복음주의의 하위 가치가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개혁 신학의 하위 가치들은 조직신학, 성경신학, 총신신학, 역사신학, 장로교회 등 대부분이 신학의 하위 연구 영역이나 특정 신학과 연관되어 있어서 신학 그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반면에 복음주의의 하위 가치는 선교신학, 복음, 선교 연구, 사회적 책임, 문화, 선교,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 등으로 개혁 신학의 하위 가치 보다 실천적으로 신학과는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분석 대상인 9개 학술지 중에서 장로교 교단의 학술지가 4개 중 3개의 학술지가 주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4번 클러스터인 성령은 칼 바르트나 몰트만 같은 신학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와 종말론, 죄과 인간 등 부분적으로는 관련성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 클러스터의 중심 주제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반면에 5번 클러스터인 구약 성경은 이사야 등 구약 성경과 창조, 언약, 안식일, 이스라엘 등 포함된 용어들의 연관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6번인 하나님은 삼위일체, 사랑과 박형룡 등은 관련성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박형룡은 한국에서 삼위일체에 관한 많은 업적을 남긴 신학자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사랑의 하위 가치인 자유와 윤리학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파생된 주제로 볼 수 있다. 7번 클러스터인 예수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등이 포함되었으며, 생명의 하위 가치로 배아줄기세포와 생명윤리학 등이 포함되어 신학적 관점에서 생명과학을 다룬 연구들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8번 클러스터인 칼빈은 종교개혁, 어거스틴, 루터, 칭의 등 종교 개혁과 연관된 용어들이 다수 포함되었으며, 특히 종교개혁 신학자들과 맥을 같이 하는 어거스틴이 이 클러스터에 포함된 것은 이 클러스터 결과의 신빙성을 높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9번 클러스터는 목회신학의 하위 영역인 목회상당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주제들은 1번 클러스터의 실천신학의 하위 영역이지만

보다 활발한 연구를 보이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특히 구약에 대한 연구에서 구약 전체는 물론이고 이사야와 출애굽기 등 각 권에 대한 연구가 동시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유일한 학술지이다. 그리고 신약의 로마서에 대한 연구도 다른 학술지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키워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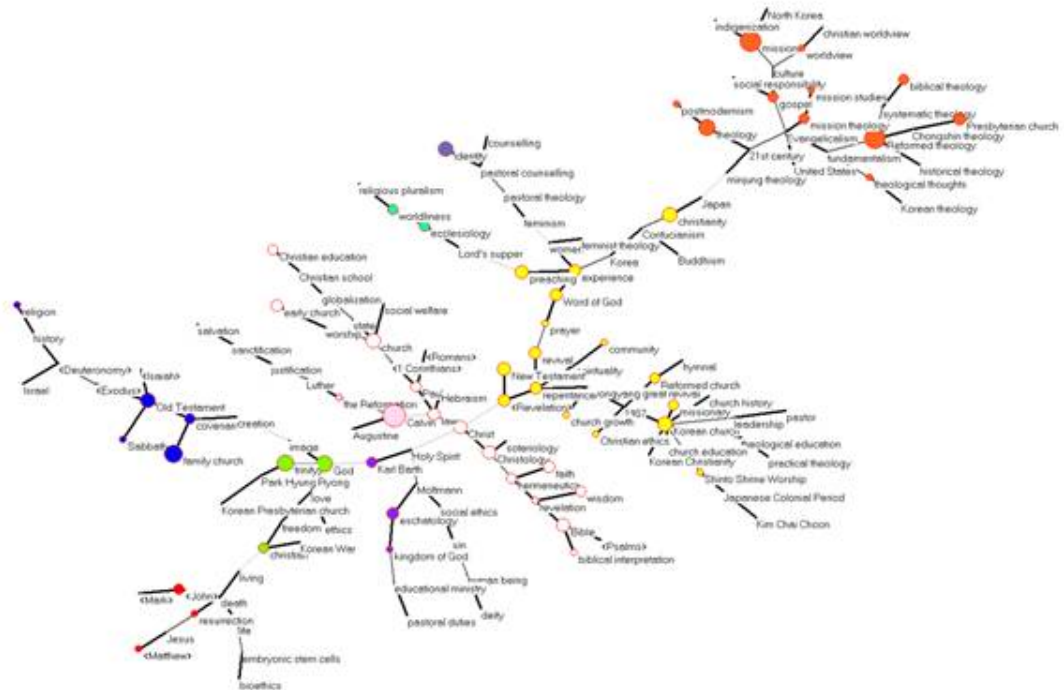
한국 교회 내에서 주요한 논쟁거리가 되었던 가정 교회에 관한 논문들이 발표된 것도 의미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가정 교회, 일명 셀 교회가 장로교나 개혁 신학 전통과 신학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 학술지에 실린 가정교회에 관한 논문들은 가정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접근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한국교회 내에서 새롭게 일어나는 사상이나 운동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민감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안식일에 관한 연구도 다른 학술지나 전체 학술지에 비해 더 활발한데, 이 주제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강조해 온 이교단의 특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신학정론(그림4)

신학정론도 한국 장로교회의 주요 교단의 신학교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이다. 전체 구조에서 특징적인 주제는 개혁 신학, 선교, 칼빈, 하나님, 삼위일체, 종말론, 구약성경, 가정교회, 요한계시록, 회개, 정체성, 언약 등이다. 개혁 신학과 교회나 신학지남과 같은 개혁 신학 연구가 활발한 학술지와 비교했을 때 선교에 관한 연구가 활발한 것은 특이하다. 일반적으로 선교는 복음주의에서 더 강조하기 때문이다. 비록 선교에 관한 연구가 비교적 많다는 사실이 개혁 신학적 성향이 부분적으로 퇴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게 하지만, 개혁 신학을 완성한 존 칼빈에 대한 연구가 전체 학술지에서 가장 활발한 것은 이 학술지의 개혁 신학적 성격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하나님과 삼위일체에 관한 연구가 함께 활발한 것도 개혁 신학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삼위일체에 대한 연구는 9개 학술지 중에서 가장 활발하여 이 학술지를 다른 학술지와 구별할 수 있는 주요한 연구 주제이다. 삼위일체에 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활발한 학술지가 9개 전체 학술지에서 신학지남 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그리고 구약 연구와 신약 연구가 동시에 활발하지만, 구약 각 권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가정 교회에 대한 연구가 많은 것은 개혁 신학과 교회의 경우가 동일하게 한국 교회 내의 논쟁적인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회개와 요한계시록에 대한 연구가 다른 학술지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회개는 기독교 신앙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인 죄와 연관되는 개념으로 인간이 자신의 죄로부터 돌이켜야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정 중의 하나이다. 특히 현 시대의 교회에서 죄를 소홀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다. 요한계시록에 관한 연구가 활발한 것은 종말론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많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유사한 구조를 보이는 개혁 신학과 교회와 신학지남과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종말론이 성경 전체에 걸쳐서 빈번하게 기술되어 있다는 사실과 위에 언급한 내용을 고려하면, 이 학술지가 개혁 신학적 특성이 강한 세 학술지 중에서 가장 다양한 신학적 주제를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체성은 장로교회나 선교사의 자녀와 관련된 연구가 대부분이다.



<그림 4> 신학정론 구조도

(3) 신학지남(그림 5)

신학지남의 구조에서 특징적인 색인어들은 개혁 신학, 선교, 한국교회, 칼빈, 어거스틴, 성경, 하나님, 삼위일체, 박형룡, 평양대부흥 등이다. 개혁 신학에 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개혁 신학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칼빈과 어거스틴에 대한 연구가 동시에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구조는 이 학술지가 유일하다. 그리고 한국교회에 대한 관심이 개혁 신학과 교회 다음으로 높으며, 신학 정론처럼 하나님과 삼위일체에 대한 연구도 대단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평양대부흥에 관한 연구가 전체 학술지에서 가장 활발하지만, 이 주제가 교회부흥운동이나 교회성장과 연관됨으로써 개혁 신학적 특성을 퇴색시키고 있다. 더욱이 구약에 대한 연구가 앞의 두 학술지뿐만 아니라 다른 학술지에 비해서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교의 경우는 신학정론보다는 못하지만 상당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개혁 신학에 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하다는 점과 상치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결과가 한국교회의 개혁 신학의 고유한 특성이라고 볼 수도 있어서 판단이 쉽지 않다.

개혁 신학적 특성을 보이는 세 학술지 중에서 개혁 신학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요인은 개혁 신학이 주요한 연구 주제로 밝혀진 세 학술지 - 개혁 신학과 교회, 신학정론, 신학지남 - 중에서 이 학술지의 색인어 빈도가 가장 높다는 점이다. 비록 개혁 신학의 색인어의 빈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논문 수를 고려해서 결과를 해석할 경우, 세 학술지에서 개혁 신

학이 갖는 비율은 거의 같다. 따라서 세 학술지에 있어서 개혁 신학에 관한 연구 비중은 동일하다.



<그림 5> 신학지남 구조도

(4) 장신논단(그림 6)

이 학술지는 장로교단의 학술지이지만 앞의 세 학술지와는 달리, 개혁 신학적인 성향을 띠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복음주의적 성향도 아니다. 한국 장로교 신학의 가장 대표적인 두 신학 조류가 특징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 학술지의 성격을 설명할 수 있는 색인어는 선교, 영성, 기독교, 하나님, 삼위일체, 몰트만(Moltmann), 하나님 나라, 교회 등이다. 그런데 다른 세 장로교 학술지에서 주요 키워드로 선정된 용어들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특히 기독교는 지나치게 일반적이어서 뚜렷한 특징을 찾아내기가 어려우며, 한국 교회도 상대적으로 다른 장로교 학술지보다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장로교 학술지와와의 차이를 보이는 용어들을 먼저 설명하는 것이 이 학술지의 특징을 더 잘 기술할 수 있을 것 같다. 먼저, 선교와 영성의 두 주제가 눈에 띈다. 선교에 관한 연구는 신학지남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며, 영성에 관한 연구는 다른 3개 장로교 학술지 보다 상대적으로 더 활발하다. 한국교회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많이 회자되는 용어이지만 성경적인 연관성을 찾기가 어려운 용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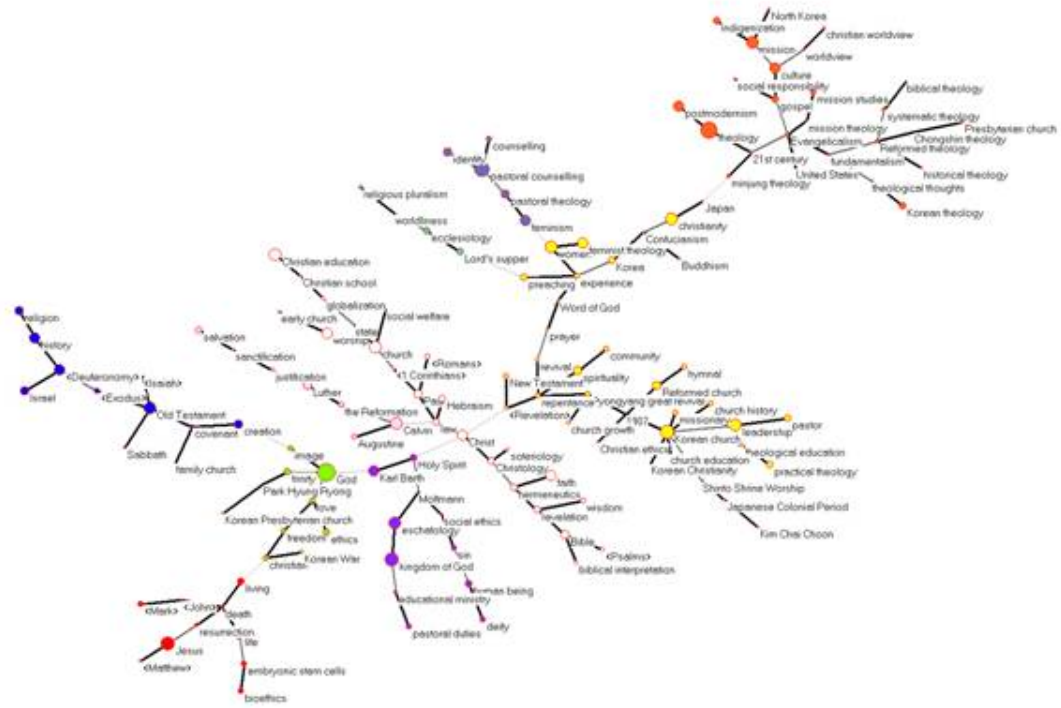


<그림 7> 성경과 신학의 구조도

요 색인어에 포함되었다. 주요한 색인어를 통해서 이 학술지의 핵심적인 연구 주제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목회 상담, 신학 교육 기독교교육 등과 같은 신학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주제가 아닌 이차적인 주제들이 주요 색인어로 선정되었다. 이 학술지의 이러한 경향을 확인 할 수 있는 또 다른 연구 주제는 배아줄기세포와 생명윤리학으로서 복음주의적 관점에서 생명과학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이 두 주제는 다른 어떤 학술지보다 가장 특징적인 분야이다.

또한 구약 성경 자체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하지만 구약 성경 각 권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편이다. 또한 종말론과 교회에 대한 연구도 대단히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림 8> 성경과 신학 구조도 교회에 관한 연구는 사회복지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회와 사회 복지와의 어떤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6) 한국기독교신학논총(그림 8)



<그림 8> 한국기독교신학논총의 구조도

이 학술지의 특정한 교과와 연계되지 않은 학술지로 전체 학술지의 구조와 가장 유사한 결과를 보여 주었지만, 약간의 차이를 보인 주제는 칼 바르트, 종말론, 하나님 나라, 신명기, 역사, 종교, 여성, 여성 신학, 여성주의, 목회상담, 문화, 지도력, 포스트모더니즘 등 이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전통적인 기독교 신학의 연구 주제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 중에서도 여성 신학에 관한 연구가 다른 학술지와 차별화되는 주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종말론과 하나님 나라의 경우에는 전체 학술지의 구조보다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두 주제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 다른 학술지의 경우에서 두 주제 중에서 한 주제로 치우치는 경향을 보여준 것과는 특이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구약 연구와 관련해서는 신학사상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어서 구약 전체와 신명기에 대한 연구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신명기 이외의 성경 각 권에 관한 연구는 미미한 편이었다. 그리고 역사와 종교에 대한 연구가 전체 학술지의 결과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눈에 띄는 주제이었다. 또한 지도력과 포스트모더니즘도 다른 학술지와 비교할 때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데, 지도력은 한국 교회의 목회자나 모세와 바울 같은 성경인물과 함께 출현하고 있어서 한국 교회의 목회자에 대한 비판적 연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도 기존의 한국 교회에 대한 비판과 연관된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주제들은 장로교 신학에서 전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는 주제도 아니다. 따라서 위의 구조도 분석 결과에 의하면, 이 학술지는 한국 장로교 신학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자유주의 신학의 색채를 띠고 할

수 있다.

(7) 신학사상(그림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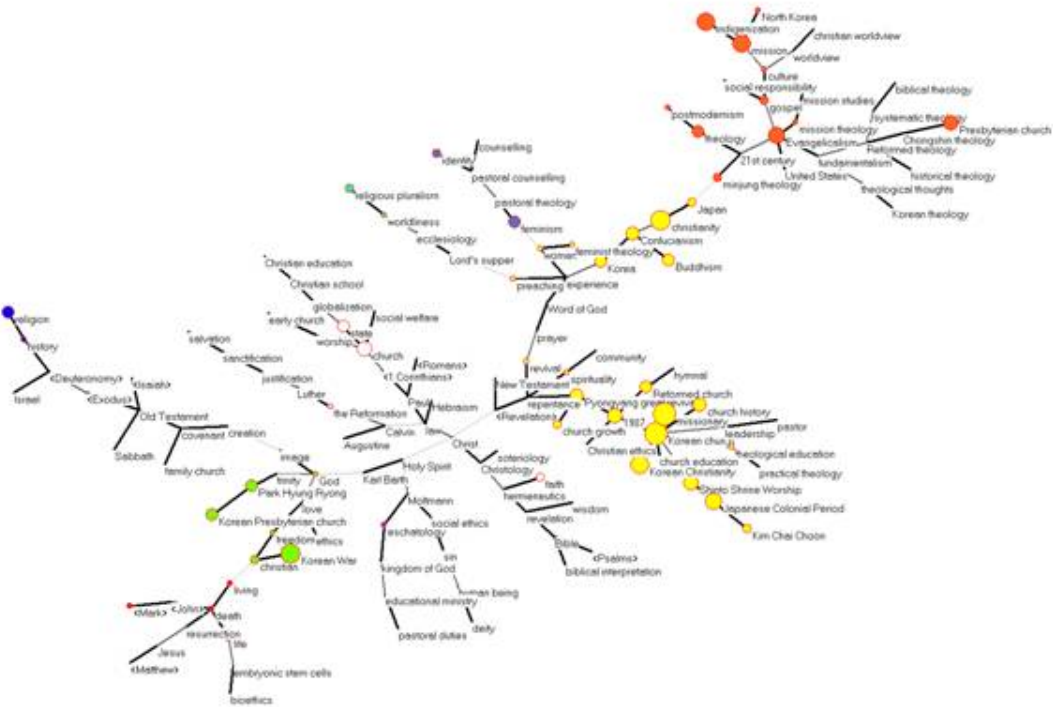


<그림 9> 신학사상의 구조도

이 학술지도 특정 교과와 연관되지 않았다. 주요 주제 색인어로는 교회, 기독교, 민중 신학, 여성 신학, 김재준, 신명기, 종교, 토착화 등이 포함되었다. 가장 핵심적인 주제 분야는 민중 신학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김재준이 한국의 고유한 신학으로 인정받는 민중 신학의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기독교신학논총과 유사하게 여성 신학과 종교가 주요 연구 분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한국기독교신학논총과 함께 자유주의 신학의 성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두 학술지의 가장 핵심적인 연구 주제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다른 일부 주제 분야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특히 이 학술지는 목회상담이 한국기독교신학논총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가 적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아마도 이 학술지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실천신학적 연구를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교회와 기독교와 관련해서 예배나 설교 등 전통적인 주제들과 연계된 연구는 찾아보기가 어렵고 오히려 교회 자체나 한국 교회를 자유주의 신학적 관점에서 비판하는 연구들과 다른 종교와의 관련성을 연구하는 주제들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이 학술지의 신학적 특성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 학술지는 한국에서 자생한 민중 신학과 기존의 자유주의 신학이 융합되어 있는 특징을 보이면서, 장로교 신학과는 그 신학적 뿌리나 관점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8) 한국기독교와 역사(그림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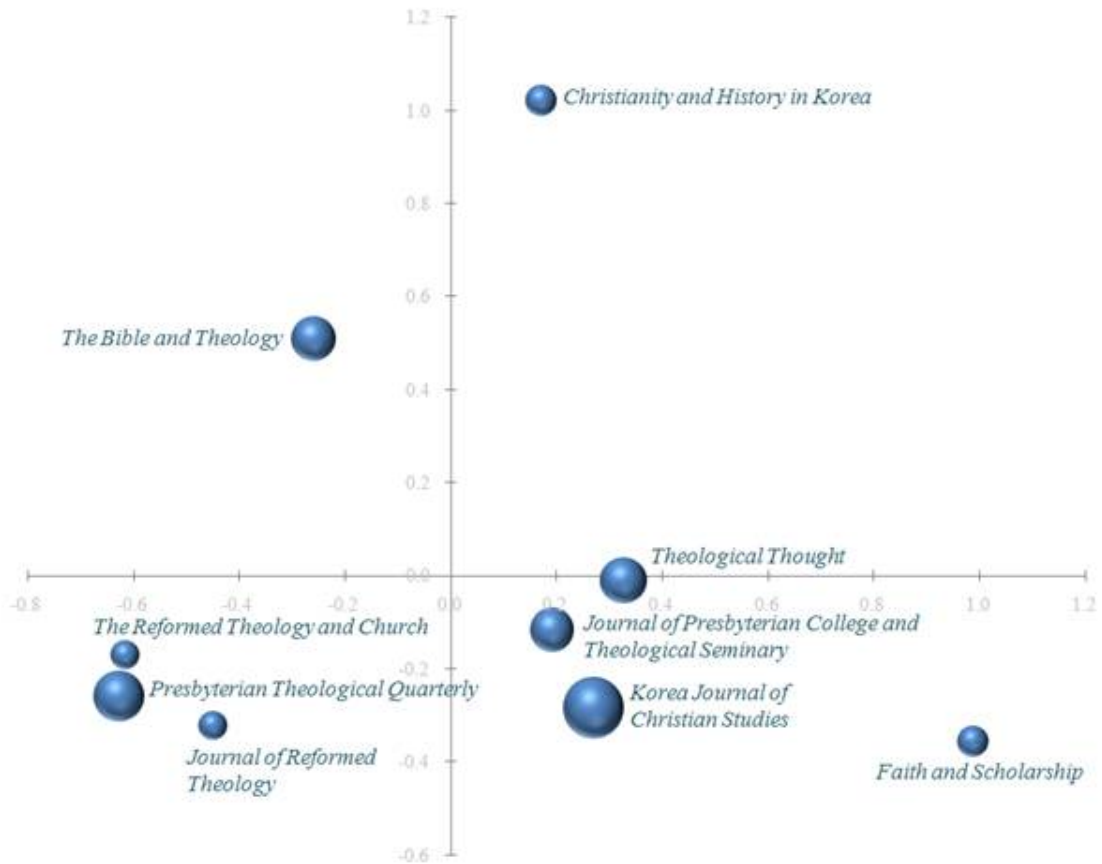
<그림 10> 한국기독교와 역사의 구조도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다루는 학술지의 특성답게 한국교회, 선교사, 한국전쟁, 신사참배, 일제강점기 등 처럼 한국의 역사적 사건들과 연관되어 있는 용어들과 더불어 복음주의, 장로교회, 선교, 토착화, 불교, 유교 등과 같은 한국의 신학이나 교회와 연관된 주제들과 기독교가 전파되기 이전의 종교 등의 용어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먼저, 한국에 복음을 전해 준 외국인 선교사, 한국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한국전쟁과 일제강점기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한국 교회 전체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신사참배 등이 주요한 주제로 포함되었다. 또한 한국 교회의 주요 교파 중 하나인 장로교회와 신학 사상 중의 하나인 복음주의 등도 포함되었다. 여기에 두 용어가 포함된 것은 한국교회사에서 장로교회와 복음주의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장로교회와 개혁 신학이 관련성이 깊은 것으로 나타난 앞의 세 장로교 교단 학술지의 결과와는 배치되는 것이다.

한국 기독교의 주요 특징들인 선교와 토착화가 포함된 것을 통해서는 그 성격이 다른 두 개념이 한국 교회 안에 공존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기독교가 전파되기 전에 한국 사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고 현재 한국의 종교 중에서 가장 많은 신자를 가지고 있는 불교와 종교의 범주에 포함하기가 모호한 유교도 포함되었다. 그리고 이 학술지에 포함된 주제어들 중 대략 반 정도가 다른 학술지에는 출현하지 않는 용어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를 통해서 이 학술지가 순수한 신학 학술지와는 구별되

3. 학술지 간의 관계 구조

아래의 <그림 12>는 학술지 간 cos similarity matrix로 만들어본 다차원척도법(Multidimensional Scaling; MDS) 지도입니다. SPSS의 다차원척도법 메뉴 중에서 PROXSCAL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MDS 지도에서 좌표축에는 물론 원래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연구자가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다만, 대체로 가로축이 비교적 해석이 용이한 축이고 세로축은 해석하기가 어려운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현재 지도에서도 왼쪽과 오른쪽의 구분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판단했을 때, 이 결과는 세밀한 부분까지 정확성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가로축을 기준으로 해석했을 때, 신학지남, 개혁신학과 교회, 신학정론의 세 학술지가 동일한 클러스터에 속한 것은 타당하다.



<그림 12> 학술지 간의 다차원척적지도

V. 결 론

한국 신학의 주요한 신학 사상은 개혁 신학, 복음주의, 자유주의 신학, 민중신학 등으로 다양하며, 이들 신학 사상 이외에 주된 연구 대상은 한국교회, 구약성경, 신약성경, 성경, 하나님, 교회, 선교, 칼빈, 설교 등을 들 수 있다. 개혁 신학은 장로교를 대표하는 신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자유주의 신학과 민중신학도 한국 신학에서 일정한 역할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중에서 개혁 신학은 장로교회와 신학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로교회가 개혁 교회인가에 대한 판단은 유보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개혁 신학이 개혁 교회와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으며, 개혁 신학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지만 개혁 교회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한국 교회의 신학적 연구들이 교회 속에서는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부분이 한국 교회가 쇠퇴하고 있는 내적 요인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 땅에서 교회는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갱신되어야 한다. 그런데 교회를 개혁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세상과는 다르게 거룩을 유지해야 한다. 여기에 필수적인 것이 회개이다. 그런데 분석 결과에 따르면 회개와 죄에 대한 연구가 극히 미미하다. 따라서 이 요인이 기독교인의 수를 줄어뜨리게 하는 요인 중의 하나일 수 있다. 세상은 교회에 보다 높은 표준을 요구하는데 교회가 세상의 표준에조차 미치지 못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회개를 통해서 교회가 갱신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분석 결과처럼 성경 각권에 대한 폭 넓은 연구가 필요하다. 신학에서 성경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면 교회에서 성경이 올바르게 가르쳐질 수 없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 한다면 한국 사회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 더불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시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올바르게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따라 성령을 좇아 사는 것이 한국 교회의 쇠퇴를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성수. (2005).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서울: 마음샘.
- 박각노. (2004). “Co-word analysis를 이용한 Supply Chain Management의 지적구조 분석.” 석사학위논문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 석사학위논문.
- 유영준. (2003). “문헌정보학의 지식 구조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 연세대학교대학원
- 이미경. (2003). “동시출현 단어 분석을 통한 지식 구조 파악에 관한 연구: 인공지능 분야를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 연세대학교대학원.
- 이재윤. (2003). “단어 동시출현 기반 질의확장의 성능 최적화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 연세대학교대학원.
- _____. (2007). “지적 구조 분석을 위한 MDS 지도 작성 방식의 비교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1(2). 335-57.
- 통계청 (2005). 『인구 센서스』. 대전: 통계청.